



김승현 남원소방서장,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등 격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김승현 서장이 부인 첫날 현장방문 행정 차원으로 관내 지리산 뱀사골을 방문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힘쓰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서장의 이번 방문은 물놀이 장소의 구조대원 배치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활동 시 대원들의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뱀사골계곡은 전국에서 수많은 피서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계곡 중의 하나로 이에 따라 남원소방서는 매년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37일간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407명(소방공무원 259명, 자원봉사자 148명)의 인원을 배치 운영해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 자리에서 김승현 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에게 "복합이 지속되는 날씨 속에 피서객들이 안전한 물놀이가 되도록 구조장비 확인 및 예방순찰 강화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대원들의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트롯 신동 김태연, 정읍에 고향사랑 200만원기탁

정읍시 홍보대사인 가수 김태연 양(12)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4세부터 관소리를 시작한 김태연 양은 정읍동신초등학교와 정읍시국악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관소리와 민요를 익혔다.

이후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최연소 대상 박동진 관소리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한 바 있다. 또한 '미스트롯2'에 출연해 최종 4위에 오른 그는 '트롯 신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태연 양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정읍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화수 시장은 "정읍 발전을 위한 김태연 양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소방서,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

장수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31일 한국농업연수원(장수읍 소재)에서 외국인(캄보디아)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 화재 화재 시 인명피해 곤란 등의 원인으로 외국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과 노동고용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전 화재대피 등 사전교육을 통해 재난 시 내 자신 안전 지키는 대응·대처를 위한 자구(自救)능력 함양 및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다.

교육내용으로는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시 대피요령 △외국인 근로자 거주 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비치 당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온 및 실습 △다국어 리플릿 활용 화재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강동일 소방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나라의 언어로 된 맞춤형 안전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2024 JJ 슈퍼스타 캠프' 성료

전주대, 개교 60주년 기념... 'WAKE UP' 주제로 전국 교회 청소년 650여명 참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개교 60주년 기념 2024 JJ 슈퍼스타 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29~31일 학생회관 슈퍼스타홀 일원에서 전국 교회 청소년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선교봉사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WAKE UP'이라는 주제로 전국 미자립 교회와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한 교회 등 종교단체 예배를 돌아보며, 영적 성장과 신앙의 회복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아가 할 방향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될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

특히,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설립된 전주대학교가 전



국 각지 교회를 챙겨주며, 영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마련됐다.

윤찬영 대외부총장은 인사말에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꿈, 비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선교봉사처 한병수 처장은 "전국 교회 청소년과 종교단체 부흥에 기여하고, 특히 캠프 개최가 어려운 지역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수련회 등 특비용을 지원하는 등 기독교 명문사립으로서 전주대학교가 전국적으로 함께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남원시, 노인일자리 '홍반장' 사업 첫 시도

남원시는 올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홍반장' 사업을 처음 시도했다.

'홍반장'은 남원시니어클럽과 함께 진행하며, 현재 130명 어르신이 시 읍면지역 65개 마을에서 활동, 전기 및 수도 고장 보일러 점검 등 일상생활에서 해결

하기 어려운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고 더불어 안부 확인 등 독고사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3월 사업 대상인 금지면의 70대 어르신택에 홍반장 일자리 참여자가 방문했다가 집 안에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빠르게 옮겨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6월에는 인월면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르신이 집안 화장실에서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홍반장 참여자의 도움으로 빠르게 조치했다.

홍반장 일자리사업 박모 참여자는 "갈수록 홍반장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홀로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의 외로운 해소와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참여자로서 매우 뿌듯하다"고 전했다.

임점숙 노인장애인과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으로 고독사 예방 사례를 스며나와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확대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완주군에 성금 기탁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가 지난날 31일 완주군을 방문해 수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완주지역 집중호우 피해가구의 현장복구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수해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순창군, 공무원 대상 암 예방 교육 실시

순창군은 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암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암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15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영정호 교수(전북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암 예방법과 국가 암 예방 수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암 예방 방법들을 배우고, 국가 암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암 예방의식이 높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군, '진안군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 개최

진안군은 8월 1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는 마을과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창설되었다. 진안군의회의 마을만들기 관련 기관·단체, 외부 전문가 행정기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회장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심의와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마을만들기 통합센터 운영과 2025년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원계획, 마을간사제도와 마을사무장 제도의 명칭 통일 건에 대해 심의하고 마을만들기 정책 발진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실시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객장에 내접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The 맛있는 전북 남원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범도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농신보 남원권역 보충센터(센터장 이성로)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임직원들은 내접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남원시 고향사랑기부금에 답례품인 춘향애인 참이를 나눠주며 'The 맛있는 전북 남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범도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편 오영석 지부장은 "농협은 쌀 가격안정화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쌀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무주군지부, 쌀 소비 촉진 사랑의 삼각김밥 나눔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는 지난 1일 쌀값 하락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주군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우리 쌀로 만든 삼각김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한 식습관 문화 형성과 무주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 쌀로 만든 삼각김밥 200개를 나누고 쌀 소비 촉진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석 지부장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과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인 당 쌀 소비량 늘리기 위한 쌀 소비활동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향교동, 29개 마을 순회 간담회

남원시 향교동(동장 권혜정)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관내 29개 마을 순회하며 마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마을마다 주민 20여명이 참석해 주요 시정 홍보와 마을에서 진행 중인 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해야 할 마을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남원누리 시민제도와 10월 3일부터 개최되는 남원국제드론제전 개최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는 등 성과를 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김제시 요촌동 지사협, 어르신 갈비탕·과일지원

김제시 요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오형석, 김만중)에서는 1일 오전 11시 두개비회관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100세대에게, 여름철 보양식 갈비탕과 과일을 지원하는 절기별 테마사업인 '어르신 보양식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지만 자녀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저소득 독거노인 100명을 각 마을 통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두개비회관에서 여름철 보양식인 갈비탕과 과일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도록 기력을 보충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또한 애로사항을 듣고 생활환경을 살피는 시간도 가졌다. 김만중 위원장은 "연일 무더위로 기력이 쇠하기 쉬운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보양식을 대접하고 인부를 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형석 요촌동장은 "항상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